

제1회 리베르타스 교양교육 심포지엄

교양교육에서 공통교과제와 배분이수제의
구성 원리와 장단점

일시 2017.11.10.(금) 14:00~17:40

장소 연세대학교 교육과학관 301호

주최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양교육연구소

제1회 리베르타스 교양교육 심포지엄

일 정

일시: 2017.11.10.(금) 14:00~17:40

장소: 연세대학교 교육과학관 301호

주제: 교양교육에서 공통교과제와 배분이수제의 구성 원리와 장단점

사회: 박영희 교양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14:00~14:10	10분	[개회사] 홍석민 소장 /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14:10~14:20	10분	[축사] 전해영 학장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14:20~15:00	40분	[발표 I] 홍석민 교수 /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장 - 교양 교육과정의 과거와 현재
15:00~15:40	40분	[발표 II] 박정하 교수 / 성균관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장 - 중핵과정과 배분이수과정의 어정쩡한 동거
15:40~16:20	40분	[발표 III] 홍성기 교수 / 아주대학교 다산기초교육연구소장 - 공통교과와 배분이수: 교양교육 그리고 대학교육의 재설계
16:20~17:00	40분	[발표 IV] 이영준 교수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학장 -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
17:00~17:10	10분	휴식
17:10~17:40	30분	[종합 토론] 신의항 교수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이보경 교수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부학장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제1회 리베르타스 교양교육 심포지엄

차 례

[개회사] 홍석민 소장 /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축사] 전혜영 학장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발표 I] 교양 교육과정의 과거와 현재 1

| 홍석민 교수 |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장

[발표 II] 중핵과정과 배분이수과정의 어정쩡한 동거 15

| 박정하 교수 | 성균관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장

[발표 III] 공통교과와 배분이수: 교양교육 그리고 대학교육의 재설계 25

| 홍성기 교수 | 아주대학교 다산기초교육연구소장

[발표 IV]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 31

| 이영준 교수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학장

제1회 리베르타스 교양교육 심포지엄

[발표 I]

교양 교육과정의 과거와 현재

| 홍석민 교수 | 연세대학교

교양 교육과정의 과거와 현재

홍 석 민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장)

1. 교양교육 =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 교육과정의 기원

1) 정의

- 인간 정신을 해방시키고 인간 본연의 자유를 추구하는 교육 : 인간을 <u>무지, 편견, 선입견, 편협, 고집, 독단 + 미신, 미망, 낡은 인습과 닫힌 생각 등에서 벗어나서 눈을 뜨게 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게 하고, 열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u> = 교양인·지식인이 되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게 하기 위한 교육
= 즉, <u>교육/학문 → 앎 → 개안(開眼) → 자유</u>
※ 연세대 교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2) 목적

철 학 적 접근	플라톤 계열 (소크라테스 3인방)	지적 탁월성을 위한 교육이 목적 = 변증법적 추론과 대화법을 통한 <u>순수한 지식·진리 자체를 탐구</u>
실 용 적 접근	이소크라테스 계열 (키케로, 퀸틸리아누스)	<u>실리적 가치와 효용을 중시하는 도구적 접근</u> = 수사학, 언어, 웅변, 도덕의 학습을 통하여 아레테(탁월함·미덕)에 도달 + 올바른 삶을 살 : 사회적 성공을 가져다 줌 - BC 4C 이후 대체로 우세 점함 : 14C에 와서 역전됨
두 전통을 상호 보완적, 즉 ‘진리’/‘지식’의 ‘표현’/‘활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		

3) 교육과정

- BC 1C 경 고대 로마의 키케로에게서 ‘artes liberales’

즉,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학문이라는 의미로서의 자유학예(liberal arts)라는 개념 형성

: BC 1C경: 7자유과(severn liberal arts)로 형식을 갖추

과학	이론적인 부분	철학적·추상적 지식을 향해 가는 지름길
인문학	실용적인 부분	- 문법, 수사학, 논리학 (모두 언어와 관련) : <u>더 많은 탐구의 기반이자 도구</u> : <u>사회적 성공의 도구</u> 세상에서 정치가, 행정가, 법률가, 상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탁월한 시민성과 지도력을 갖추도록 준비시키는 것

- 수 세기 후 중세에 들어 3학·4과라는 교육과정으로 체계화 됨

3학	문법, 수사학, 논리학(or 변증법)	즉, 언어와 문법	3학을 기본으로 먼저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4과를 공부 = 즉, <u>모두가 일종의 ‘공통교과’로서 필수 과목</u>
4과	기하학, 대수학, 천문, 음악	즉, 수학과 과학	

2. 근·현대 교양 교육과정의 발달

- 자유교양대학(liberal arts college, LAC)과 학부대학(university college)의 등장

: 근대적 의미의 교양교육은 ‘대학(university)’보다 영국의 ‘컬리지(college),’ 특히 학부생 교양 교육에 중점을 둔 소규모의 기숙형 자유교양대학(residential liberal arts college, LAC)이나 university 내의 학부대학(university college)을 통해 영미권으로 계승되어, 특히 미국에서 발달.¹⁾

2-1. 하버드와 배분이수제

1865년 엘리엇 총장(40년 재임)	
1) <u>완전 자유선택제</u> 도입 → 전통적 필수이제도 폐지	- 교수의 과목 개설 자유 + 학생의 과목 선택 자유 부여
목	<u>자립적인 인간</u> 으로서 <u>자유로운 선택권</u> 을 통해 타고난 잠재력을 스스로 계발하여 적 자아실현의 기회로 삼고 <u>선택에 대한 책임감</u> 을 함양하도록 함
결	각자 관심 분야에만 집중함으로써
과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집중·세분화 되고 직업전문교육이 강화되어 폭넓은 교육 결여

1909년 로웰 총장(36년 재임)	
2) <u>체계적인 자유선택제</u> 도입	
- <u>집중</u> + 학문 계열별(3과목씩 선택) <u>배분이수제</u> (concentration & distribution) 실시	
<u>집중</u>	자유선택제에서 나타난 집중·세분화 이수 현상을 → <u>전공 제도로</u> 발전시킴 ²⁾
<u>배분이수</u>	<u>교양교육과정</u> 으로 발전
장 · 단 점	: 잘 구성하면 다양한 학문분야 접하고 타 분야 전공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통 지식 제공 : 실제로, 원칙 없이 임의로 자기가 듣기 쉬운 과목 선택 → 합리적 과목 program 구축 불가 + 교양보다 전공기초 과목 개설 + 전임보다 시간강사가 강의 ⇒ 이 제도의 장점이 사라지고, 계열별 과목 질 관리 및 제고 어려움 : ‘Red Book’ = ‘자유 사회에서의 교양교육’ (1945?) → ‘<u>교양과목들도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u> <u>지배적인 사상을 전달하는 과목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일체</u>’여야 한다고 강조

- 1) 13C 이후 신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국의 컬리지가 19C 들어 전문 신학대학이 생겨나면서 (1) 점차 세속화 되고,
(2)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학들이 연구 중심적인 ‘대학’을 추구할 때
(3) 레지덴셜 컬리지(RC)로서 학부생을 위한 체험적 교양교육(‘living learning-experience, peer-to-peer education = laternal learning’을 강조.

3)-5) 중학교과제와 배분 이수제

	3)1978-2008 ³⁾	4) 2009-2018 ⁴⁾	5) 2019 시행 ⁵⁾	
교육 과정 + 수강 방법 + 영역	<u>중학교육과정</u> ≡ 영역별 필수 배분 이수제	<u>영역별 필수 배분 이수제</u> ≡ 중학교육과정	<u>영역별 필수 배분 이수제</u>	<u>계열별 필수 배분 이수제</u>
	※ 중학교과제 ≡ 소수의 엄선된 과목들로 구성된 영역별 필수 이수제로 볼 수도 있음			
	11개 영역별 택 1	8개 영역별 택 1	5개 영역별 택 1	3개 계열별 택 1
교육 목적	- ‘우주와 사회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얻는 것’ : 지식과 기술의 급팽창 및 다양화에 대해, 보편적인 ‘사고·탐구 방법 습득’ : 이질적인 학생들이 <u>지적 공감대 형성</u>	- 교양교육의 목적 중 <u>실용성과 효용성</u> (≠ 직업교육) 강조 : ‘수업을 강의실 밖에 놓은 학생들의 <u>실제의 삶</u> 과 <u>연결시키는 것</u> ’	- 기존 교육과정 비판 : 다학제적인 영역 구분 기준 설명이 교양교육 전체 철학을 가려서 교양교육의 정체성과 과목들의 경계선 모호 : 강제적인 과목 개설·선택에 대한 불만 : 계열별 학문 영역에 대한 지식 부족에 대한 불만 - 교양교육의 목적: 실용성보다 <u>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에 근거한 진리 탐구 재강조</u> : ‘변화하는 세계에서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u>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것</u> ’	
	‘이성의 훈련’	‘응용력과 적응력 계발’	‘태도, 품성, 인성’ 계발로까지 확장	

+]

- 2) ※ 하버드대는 ‘전공(major)’과 유사한 집중 이수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전공보다는 약간 적은 이수학점이 요구된다.
- 3) 중학교육과정(core curriculum) 보고서(1978)에 기초.
- 4) 교양교육 대책위원회 보고서(Report of the Task Force on General Education, 2007)에 기초.
- 5) 교양교육 평가위원회 최종 보고서(General Education Review Committee Final Report, 2016)에 기초.

3)-5) 중핵교과제와 배분 이수제 (계속)

	3) 1978-2008 시행	4) 2009-2018 시행	5) 2019 시행	
교 육 과 정 + 수 강 방 법 + 영 역	<u>중핵교육과정</u> ≡ 영역별 필수 배분 이수제	<u>영역별 필수 배분 이수제</u>	<u>영역별 필수 배분 이수제</u>	<u>계열별 필수 배분 이수제</u>
	※ 중핵교과제 ≡ 소수의 엄선된 과목들로 구성된 영역별 필수 이수제로 볼 수도 있음			
	11개 영역별 택 1	8개 영역별 택 1	5개 영역별 택 1	3개 계열별 택 1
예 술	문학	미학적 해석적 이해	미학과 문화	예술과 인문학부
	미술·음악			
	문화사			
역 사	거시적 역사연구	문화와 신념	역사와 사회와 개인	사회과학부
	미시적 역사연구			
사 회 과 학	사회적 분석	세계속의 사회	역사와 사회와 개인	사회과학부
외 국 문 화	외국문화	세계속의 미국		
자 연 과 학	물리과학	물리과학	사회의 과학과 기술	자연과학부와 공학부
	생물과학	생명과학		
도 덕	도덕적 추론	윤리적 추론	윤리와 시민	
도 구 과 목	수학적 추론	경험적 수학적 추론	수학적 추론	
	글쓰기	글쓰기	글쓰기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2-2. 시카고와 컬럼비아의 공통교과제로서의 중핵교과제(Core Curriculum)

- 20C 초 이민의 물결 속에서 미국 본연의 고유 특성과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 : 1920년 컬럼비아는 2년 과정의 ‘우등교양과정(General Honors Course)’를,
- 1930년 시카고는 고전읽기를 → 공통교과로 제공
- : 1920년대 국가별 이민 쿼터제 실시 후 1930-40s에는 공통교과에 대한 관심 증
- : 현재 시카고와 컬럼비아 등 극소수 대학만이 필수적 공통교과제 실시

3. Yale-NUS College 교육과정

1) AAC&U의 2013년 교양교육 (= 자유교육, LE)의 정의⁶⁾

-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 Universities는 교양교육을 = “개인이 <u>복잡성, 다양성, 그리고 변화</u>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준비시키는” 교육. : 즉, <u>특별한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u>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영역(예: 과학, 문화, 사회)에 대한 <u>넓은 지식</u>을 습득시켜, <u>사회적 책임감</u> 개발, <u>소통·분석·문제해결</u> 능력과 같은 강력한 <u>지적·실천적 기술</u> 및 이를 실제 세상의 <u>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u> 배양시키는 교육 으로 정의함
--

+]

The Changing Nature of Liberal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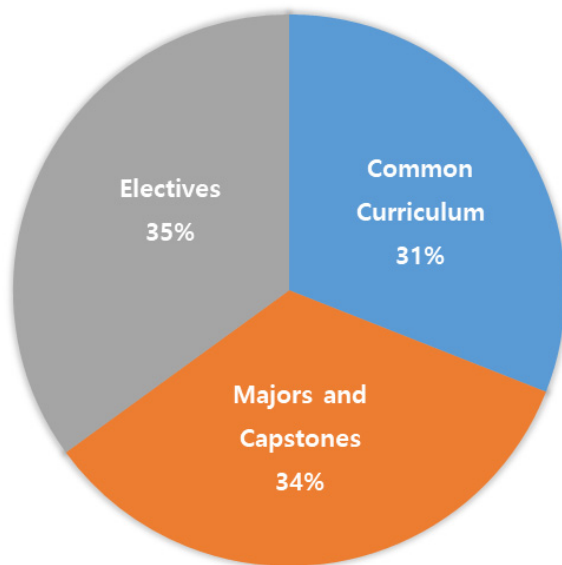
	Liberal Educ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Liberal Educ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What	• 지적 & 개인적 발전 •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선택 • 직업(교육)과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	• 지적 & 개인적 발전 • <u>모든 학생</u>에게 필수 • <u>세계 경제(global economy)</u>와 지적인 시민(성)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수
How	• 대학 초년기에 전공 and/or 교양을 통해 성취	• 모든 초·중·고등 교육 단계에 걸쳐 점차 더 높은 수준의 교육적 성취를 달성하면서 얻게 되는 모든 핵심적인 학습 결과를 강조하는 교과를 통해서 성취
Where	• liberal arts colleges나 학부대학	• 모든 종류의 학교, 컬리지, 대학의 모든 학문 분야

+]

- 다시 말해서, 교양교육의 <u>목적</u>으로 = <u>지성·인성 + 실용성</u> 두 가지 다 추구할 필요성 강조

6) <https://aacu.org/leap/what-is-a-liberal-education>

2) Yale-NUS의 중핵교과제



Yale-NUS College 교육과정 구성 비율

- 기술 간 + 기술과 산업 간 연결과 융복합이 대세를 이룰 4차 IR의 시대에
이런 교양교육=자유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교육과정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필수=강제적인 중핵교과제 선택

교육과정	과목/전공
중핵교과 7개 (1, 2학년)	비교 사회 탐구 (Comparative Social Inquiry) 역사적 융합 (Historical Immersion) 문학과 인문학 (Literature and Humanities) 현대 사회 사상 (Modern Social Thought) 철학과 정치사상 (Philosophy and Political Thought) 양적 추론 (Quantitative Reasoning) 과학 탐구 (Scientific Inquiry)
- 미국의 중핵교과보다 더 넓은 범위 포괄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에 대해 폭넓은 지식과 + 무엇보다 <u>비판적 사고능력 및 과학적 탐구능력</u> 함양 지향 : 동서양 고전 비교, 인문학, 사회과학, 계량적 사유,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해석 능력 배양 목표 : RC 통해 <u>생활과 교육, 삶과 배움을 통합</u> 하고 <u>지성과 더불어 인성을 겸비한 전인교육</u> 추구	

3) 자유선택제

교육과정	과목/전공
자유선택 Electives : 100여 개의 모듈(module)	몇 가지 例> 단테와 유럽의 중세 (Dante and the European Middle Age) 유전학 (Genetics) 통합 음악 이론 1 (Integrative Music Theory 1) 도시학 입문 (Introduction to Urban Studies) 소프트웨어 발달의 원리와 도구 (Principle and Tools of Software Development)

4) 전공 및 부전공 과정

교육과정	과목/전공	
- 과(department) 없는 전공(major)제 : <u>중핵교과를 기반으로 학습 가능하도록 유기적 설계</u> 즉, <u>공통교과와 전공이 유기적으로 연계</u> : 최대한 <u>넓은 범위</u> 포괄하면서 <u>다학제적</u> 성격을 띠 : Ph.D. 과정 진학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u>깊은 전문지식</u> 갖추도록 설계 - NUS 과목 전체 중 원하는 것 수강 가능		
개설 전공 (: 10과목 이수) (+ 부전공 : 5과목 이수) 과정	인문학	예술과 인문학(Arts & Humanities) 환경연구(Environmental Studies) (융복합 개설전공) 역사(History) 문학(Literature) 철학(Philosophy) 경제학(Economics) (융복합 개설전공)
	자연 과학	환경연구(Environmental Studies) (융복합 개설전공) 생명과학(Life Sciences) 수학 • 컴퓨터 • 통계학(Mathematical, Computational and Statistical Sciences) 물리학(Physical Sciences)
	사회 과학	인류학(Anthropology) 경제학(Economics) 환경연구(Environmental Studies) (융복합 개설전공) 국제문제학(Global Affairs) (융복합 개설전공) 정치학 • 철학 • 경제학(Politics, Philosophy & Economics) 심리학(Psychology) 도시학(Urban Studies) (융복합 개설전공)

5) 중핵교과제와 전문직업교육과의 연계

- 복수학위과정(NUS 법학),
- 5년짜리 대학원 연계과정
(Yale 경영학, 공중보건학, 산림 및 환경학) + (NUS 공공정책학)
- 교양을 갖춘 전문인 양성 가능

+]

Yale-NUS College와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법과대학 (복수 학위 제도)
(리버럴아츠 교육의 탄탄한 기초, 법학 분야의 직업전문교육 결합)

Year	과정
01	LAC-리버럴아츠 공통 교과목
02	리버럴아츠 선택 교과목 법학의 기초과목
03	LAC 교과목
04	법학 전공 교과목
05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융·복합 교과목 (LAC와 법학과 공동개발 과목)

- 상위 20여명 최우수 학생:
Yale-NUS가 제공하는 리버럴아츠 교육,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법학 기초교육
- 졸업: 문학사(Bachelor of Arts), 법학사(Bachelor of Laws) 공동학위 수여
- 1~4학기: Yale-NUS의 RC (리버럴아츠 교육)
- 5학기~ : 싱가포르 국립대학 법학과 (직업전문교육 위주의 수업)

4. 대한민국의 선택은?

1) 교기원 표준안

- 공통교과와 배분이수제 융합형 - 공통교과/중학교과라 할 수 있는 기초교육 영역에 <u>도구적 성격의 과목들 + 자연과학 과목들만 포함</u> 즉, <u>인문·사회 과목들은 교양 영역에 배치</u>
--

+]]

대영역	세부 영역		
[가] 기초교육 영역	① 사고교육 영역: 논리학, 수리·통계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② 정보문해교육 영역: 소프트웨어 문해(Literacy)		
	③ 의사소통교육 영역 I (한국어)		
	④ 의사소통교육 영역 II (영어)		
	⑤ 의사소통교육 영역 III (기타 외국어)		
	⑥ 수학 및 기초과학교육 영역		
[나] 교양교육 영역	A형 : 주제별 영역 분류		B형 : 학문 분야별 영역 분류
	①자연 및 과학	인문 학	①문학·예술
	②기술의 본성 및 성과		②역사·철학·종교
	③인간의 본성 및 조건		
	④문화현상과 현대문명		
	⑤사회적 현실	사 회 과 학	③정치학·경제학
	⑥역사적 현실		④사회학·문화학·심리학
	⑦인륜성 탐구와 도덕적 추론		
	⑧종교적 가치		
	⑨미적 가치	자 연 과 학	⑤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다] 소양교육 영역	①신체적 체험교육		
	②정서적 체험교육		
	③사회적 체험교육		
	④교시 구현/신입생 정착/학생지도		

2) 연세대 교양 교육과정

- 역시 공통교과제와 배분 이수제 융합형
- 공통기초 = 중학교과에
 <글쓰기>와 <영어> 같은 도구적 성격의 과목과
 ‘교시 과목’에 해당하는 <기독교의 이해>만 포함
 :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분야에 걸쳐 필수 중학교과 개발 시급

+]

교육과정	영역 및 교과목 / ()는 개설 과목 수
공통기초	기독교의 이해 글쓰기 대학영어
필수교양	문학과 예술(22) 인간과 역사(35) 언어와 표현(37) 가치와 윤리(18) 국가와 사회공동체(23) 지역사회와 세계(19) 논리와 수리(27) 자연과 우주(30) 생명과 환경(29) 소프트웨어(1)
선택교양	역사·철학영역(22) 과학·기술영역(15) 사회·윤리영역(33) 인문·예술영역(24) 세계문화·언어영역(39) 생활·건강영역(93)
소양교육	RC 교육

제1회 리베르타스 교양교육 심포지엄

[발표 Ⅱ]

중핵과정과 배분이수과정의 어정쩡한 동거

| 박정하 교수 | 성균관대학교

중핵과정과 배분이수과정의 어정쩡한 동거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교양기초교육연구소장
박정하

개념

* 공통교과 vs. 배분이수

- 단순한 이수 방식 차원은 접근은 큰 의미 없음

* 중핵(core) vs. 배분이수

- 하버드의 중핵과정은 이수 방식에서는 배분이수?
- 교과과정: 교육 목적의 실현 방법에 대한 답
⇒ **교양교육의 독립된 목적을 전제로 한 구분**
- 교양은 전공에 종속되는 단순한 준비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 독자적인 가치, 존재이유 보유
⇒ 기초 교육이 아닌 교양 교육 영역 과정의 구성방식으로 좁혀서!
- 기초교육: 공통(필수) vs. 선택
- **기초학업 능력과 관련된 교과**는 공통 교과이지만 **중핵교과** 아님

개념

* 예일대(전통적 배분이수)

- 기초능력 필수 + 학문 분야별 필수

* 동경대

- 기초과목(대학전체필수)+**종합과목**(6개 분야 중 4개 이상 선택필수)
+주제과목(수시 개강, 선택 필수)

* 북경대

- 공통교과(필수)+ **교양교과**(5개 영역에서 각각 선택필수)

중핵과정

* 특징

- 교양교육의 목표를 구체적이고 독립적으로 명료하게 설정
-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적 지식이나 능력 설정
: 교양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의 범위 확정
⇒ **특정 영역이나 주제 선택 후 집중** (영역화+과목화)
- 1)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고(텍스트)
2) 그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과목화)
3) 이를 통해 특정 능력을 배양, 전수할 수 있다

예>고전 중심 중핵필수교과(세인트 존스 칼리지)

영역 중심(컬럼비아) : 40%가 이민가정 자녀인 상황에서 시작

Contemporary Civilization

Art Humanities

Literature Humanities

Music Humanities

University Writing

Frontiers of Science

중핵과정

* 장점

- 목적에 맞는 교과 설계
- 동일한 교과 내용 충실히 설계 운영(균질화)
- 영역(주제)별 필수 이수 경우 학제적 접근의 과목 배치 가능
- 교강사 수급 계획적

* 단점

- 교과내용의 암묵적 배타성(WASP, 서양고전, 남성저자)
- 기초학문에 대한 교육이 다른 방식으로 (예, 일반선택) 확보되거나 병행될 때만 바람직한 결과 도출

배분이수

* 특징

- 교양교육의 목표 전제 : **전체를 포괄, 균형과 조화(모든 영역을 골고루)**
-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시민적 교양 등)는 것에는 동의, 그러나 그것이 특정 내용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 ⇒ 1)-3) 모두에 회의적
- 동일한 목표가 다양한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다.
 - ⇒ 학생의 선택권과 책임 인정
- 전 학문영역에서 광범위하게 기초 지식의 기반을 마련
 - ⇒ **카페테리아 방식(cafeteria approach)**
- 학문 계열별 접근만이 아닌 (주제) 영역 중심 접근도 가능,
 - 단 영역이 전체를 일반적으로 포괄할 경우
 - ⇒ 교육목적에 맞는 (주제) 영역으로만 선택적으로 구성하고 모든 학생이 그 영역을 이수해야 한다고 하면 중핵과정으로 보아야 (하버드)

배분이수

* 장점

-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 습득
- 주요학문 분야의 전통과 내용 습득: 전공 선택 이전에 다양한 학문 접하게
- 다른 전공 교수 및 학생과 의사소통 가능한 공통 지식 제공
: 전공 중심에서 벗어나는 파편화 극복
- 학생의 선택권과 책임 강조

* 단점

- 교강사 확보 부담 가중
- 느슨하게 운영되면 교육 내용의 수준 저하 초래 (학생이 쉬운 과목만 선택)
- 양날의 칼 : 학교내의 권력 갈등 해소 혹은 강화
- 전공자를 위한 교과내용으로 변질되기 쉬움

하버드대 사례

1. 필수교과제(19세기 말까지)

2. 자유 선택제(1869)

- 흥미있는 분야만 집중 학습 문제 발생
- 1900년 초 수강신청 1/4이 13개 인기강의에 집중,
전체 강의의 절반은 수강인원 10명 이하

3. 학문 계열별 배분이수 및 전공제(1909)

- “체계적인 자유 선택제”
- 집중(concentration)-배분(distribution)-선택(elective)
⇒ 20세기 초중반 다수의 미국대학: 교육과정 대절충기(the Great Curriculum Compromise)
- Red Book(1945): 학문계열별 배분이수 문제점 지적
⇒ 교양도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핵심 내용과 사상을 전달하는 과목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일체가 되어야(필수 이수 제도의 필요성 역설)

하버드대 사례

4. 중핵과정(1978)

- 지식의 양적 팽창, 지식의 경계선 약화, 비서구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
⇒ 핵심 지식에 대한 동의 약화
- 지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배양을 위해 지식에 접근하는 방법(탐구 방법), 사고의 독특한 방법 중시 : **내용(지식)에서 방법으로**
- 목적: 우주와 사회와 우리자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얻는 것 (**탐구하는 방법의 습득**)
 - 1) 비판적 사고
 - 2) 지식과 이해를 얻는 방법에 대한 비판적 안목
 - 3) 다른 문화나 다른 시대에 대한 이해
 - 4) 도덕적 선택을 분별해 낼 수 있는 판단력
 - 5)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 1): 대학교육 전반
2), 3), 4) : 교양교육 (중핵)
5): 전공교육

하버드대 사례

5. 영역별 필수이수(2009)

- '연결'(학문과 삶의 연결) 강조: 예측 불가하고 불안정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각자의 삶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유용성)
- 목적: 학문을 강의실 밖에서 겪을 학생들의 실제 삶과 연결시키는 것(**학문과 삶의 연계**)
- 학문이 아닌 삶의 단위로 영역 분할(주제 중심)
⇒ 비학문적, 비지성적이라는 비판 존재

6. 개정(2016, 2019 시행): 영역별 필수이수+학문 계열별 배분이수

- 목적: 변화하는 세계에서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것(**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삶**)
⇒ 교양교육과정의 과목들이 자신의 학문 분야를 도덕적 실천과 접목시키기를 요구
- 배분이수 도입 이유: 일련의 주요 탐구 영역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 필요
+ 학생도 교육에 대한 책임을 수행해야(자유선택권)

하버드대 사례

영역	1978-2008 시행	2009-2018 시행	2019 시행	
	영역별 필수이수제	영역별 필수이수제	영역별 필수이수제	계열별 배분이수제
	영역별 택 1	영역별 택 1	영역별 택 1	계열별 택 1
예술	문학 미술음악 문화사	미학적 해석적 이해	미학과 문화	예술과 인문학부
역사	거시적 역사연구 미시적 역사연구	문화와 신념		
사회 과학	사회적 분석	세계속의 사회	역사와 사회와 개인	사회과학부
외국 문화	외국문화	세계속의 미국		
자연 과학	물리과학 생물과학	물리과학 생명과학	사회의 과학과 기술	자연과학부와 공학부
도덕	도덕적 추론	윤리적 추론	윤리와 시민	
도구 과목	수학적 추론	경험적 수학적 추론	수학적 추론	
	글쓰기	글쓰기	글쓰기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한국: 어정쩡한 동거

1. 필수와 선택필수의 어정쩡한 동거

- 필수는 중핵, 선택 필수는 배분이수라는 단순 인식 극복해야
⇒ 교양교육의 독립적 목적, 목표 설정 여부가 먼저 문제
- 기초학업능력 과정이 중핵이라면 교양교육의 목표는 전공교육 준비에 국한
- 교양교육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선택해야

2. 역량기반과 융복합의 어정쩡한 동거

- 목적, 목표 차원의 혼선 초래
- 역량기반교육: 중핵교과가 더 적합
융복합교육: 학문계열별 배분 이수가 더 적합
⇒ 목적, 목표의 부재

한국: 어정쩡한 동거

1. 역량기반교육 현실

- 기초교육을 교양교육 목표로 설정
 - + 기초학업능력만이 아닌 직무 적성 관련 역량까지 교양교육 목표로 설정
 - + 전공과정의 역량과의 연계는 취약 (교양과 비교과 중심)
- 한국은 '인재상' 대학: 인재상 자체를 실용적, 직업적 차원에서 규정 혹은 인재상은 전인적이나 역량은 실용적 차원에서 규정하여 부조화

2. 융복합교육 현실

- 五里霧中?
- 학문계열별 배분 이수가 더 적합
 - + 주제 중심 배분이수에 시범적인 융합 과목 일부 배치(고학년 교양)

*** 교양교육의 독자적 목적, 목표에 대한 성찰을!**

제1회 리베르타스 교양교육 심포지엄

[발표 Ⅲ]

**공통교과와 배분 이수:
교양교육 그리고 대학교육의 재설계**

| 홍성기 교수 | 아주대학교

공통교과¹⁾와 배분이수: 교양교육 그리고 대학교육의 재설계

홍 성 기 (아주대학교 다산기초교육연구소장)

1. Ganga University²⁾



- 1.1 갠지스대학은 가상대학
- 1.2 학부졸업요건은 최소 8학기 등록, 120학점에 해당하는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
- 1.3 학부 강좌에는 교양, 전공의 구별이 없고 오로지 선택교과목(electives) 존재
- 1.4 학부강좌의 내용
 - 1.4.1 A 유형: 기초학문(의사소통, 인문, 사회, 자연 및 예술)
 - 1.4.2 B 유형: 기초학문, 응용학문 및 ‘배워서 나쁘지 않은 모든 지식’³⁾
- 1.5 강의 폐지; 수강생 수 하위 X%
- 1.6 Simulation⁴⁾ A
 - 1.6.1 훔볼트의 Bildung
 - 1.6.2 통합기초학문 교육, 융복합 교육 일반화
 - 1.6.3 강한 학생주도성 요구(졸업결과: ‘나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common curriculum’, ‘common core curriculum’ 동의어로 사용. ‘The Core’는 시카고대학에서 중핵공통교양, 하버드에서 배분이수를 의미

2) 갠지스강의 심각한 오염은 잘 알려진 사실로서, 인도의 성스러운 강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

3) 문화센터강의류, 학원강의류, 취창업 교과목, 자기관리(계발?:메이크업, 힐링 etc.) 키치형 교과목 (예:커피인문학 etc.)

4) 시대상황 및 대학의 위상(명문 여부)에 따라 가변적

- 1.6.4 좋은 학사지도제 요구
- 1.6.5 지적 딜레마 양산(명문의 경우: 졸업장=취업증서)
- 1.6.6 직업교육은 대학원으로/직업교육은 전문학교로
- 1.7 Simulation B
 - 1.7.1 강한 학생주도성 요구(졸업결과: ‘나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1.7.2 좋은 학사지도제 요구
 - 1.7.3 융복합 천국
 - 1.7.4 雜非學 천국
 - 1.7.5 기초학문 도태: 자기학습능력 하락=졸업후 사고, 직업선택의 유연성 하락
 - 1.7.6 직업교육은 전문학교로

2. 20세기 초 미국 공통교과와 배분이수를 통해 대학에서 전공과 교양의 분할 시작5)

2.1 시카고대학교(The University of Chicago) 허친스 총장의 공통교과 도입의 배경



“Education is not to reform students or amuse them or to make them expert technicians. It is to unsettle their minds, widen their horizons, inflame their intellects, teach them to think straight, if possible.”

Robert Maynard Hutchins(1899~1977, 재임:1929~1951)

2.1.1 공통교과 도입 이전에 시카고 대학의 학부교육은 일반선택만 있었음

2.1.2 허친스는 시카고대학의 학과를 인문, 사회, 생명과학, 물리과학의 4학부로 조직

2.1.3 교양교육(The Core) 전담기관을 전임교수가 배속되는 대학내 독자적인 대학으로 설립

2.1.4 입학 2년간 Great Books를 중심으로 4학부의 개론 강좌를 수강하여 공통의 배경 지식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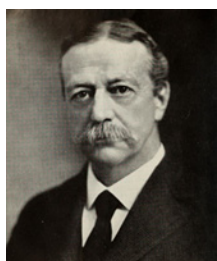
2.1.5 학부교육에서 교양교육의 중요성 강조

2.1.6 교양교육의 내용은 비역사적 관점에서 접근

2.1.7 학부교육에서 직업주의, 학문의 파편화 반대(연구대학에 대한 비판)

2.1.8 대학의 본질: 서구문화의 계승과 민주주의를 이끌 지식인 양성

2.2 하버드 대학(Harvard College) 로웰 총장의 배분이수 도입(1914)의 배경



“All that you may achieve or discover you will regard as a fragment of a larger pattern of the truth which from the separate approaches every true scholar is striving to descry.”

Abbott Lawrence Lowell(1856~1943, 재임:1909~1933)

2.2.1 집중과 배분이수 과정 도입 이전에 하버드 대학의 학부교육은 일반선택만 있었음

2.2.2 1869년 엘리엇(C. W. Eliot) 총장은 학부교육의 모든 이수요건을 폐지.

5) 미국 교양교육의 두 극단적 유형: 시카고대학의 공통교과제, 브라운대학의 Open Curriculum

2.2.3 1914년 이전: 기초학문 분야에서 전공과 교양의 구분 없이 16개의 全講座(1년간 진행:full course)를 이수하면 졸업자격 취득가능. 학부생 절반이 개론 과목만 듣고 졸업

2.2.4 로웰(L. Lowell) 총장의 교육관: "Every educated person should know a little of everything and something well."

2.2.5 기초학문 분야에서 집중(concentration) 6개, 배분(distribution) 6개 Full Course(교과목 자체가 전공/교양으로 구분되지 않았음. 현재 하버드의 교양교과목은 교양으로 개발된 것과 학과에서 개설한 것의 혼합체제)

2.2.6 학부교육을 받은 딜렘땅트 양산 제어

2.2.7 교양교육에 대한 논의 지속(학과에서 제공하는 교과목 vs 교양으로 개설된 교과목)

2.2.8 대학의 본질: 사상의 자유의 본산으로서 민주주의를 이끄는 학자/전문가 교육

3. Ganga University, 시카고대학 및 하버드대학의 교훈

3.1 대중사회에서 대학의 존재이유를 찾기 위해서 잡비학은 배제되어야함

3.2 대학을 넘어서는 대학교육을 위해서 보편교육의 도입 불가피

3.3 '졸업생의 취업을 위해서' 대학교육의 특정 분야 교육 필요할 수 있음⁶⁾

3.4 학자/전문가 교육을 위해서 기초학문 교육 불가피

3.5 ∴ 대학교육의 교양, 전공으로 구체화 필요 및 기초학문 중심 교양교육 필요

3.6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의 기초가 아님!

3.6.1 교양교육이 전공교육에 도움이 되거나 반드시 필요할 수 있음

3.6.2 전공교육이 교양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음

4. 공통교과의 설계

4.1 '대학교육의 본령/핵심(The Core)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교양교육의 강조

4.2 교양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비역사적 접근 불가피('모든 대학생이 배워야 할 교과목 추출 필요)

4.3 고전교육의 강조

4.4 강한 권력을 갖는 교양교육 담당기구

4.5 교육의 내용이란 학생의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교수자의 확인된 경험

5. 배분이수의 설계

5.1 '대학교육의 본령/핵심(The Core)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공교육의 강조. 왜냐하면 배분이수의 영역별 교과목을 학과가 제공하기 때문

5.2 교양교육의 내용에 대하여는 개별 단과대학의 (역사적) 입장 반영

5.3 문해(literacy)⁷⁾교육의 강조

5.4 강한 권력을 갖는 학과들(학과 권력 제어의 필요성)

5.5 교육의 내용이란 교수자의 확인된 경험 보다 학생의 새로운 경험

6)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St. John's University처럼 학부교육에 전공이 없는 대학이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전적으로 입학생의 선택과 졸업생의 진로에 달려 있음. 이 대학은 허친스 시카고 대학총장의 이념을 전적으로 구현한 대학

7) '문해교육'을 종종 '도구교육' 혹은 'skill교육'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후자의 표현보다는 전자를 선호해야함. 그 이유는 각종 literacy에는 '세계를 보는 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단순한 도구/기술 보다 훨씬 중대한 의미를 갖기 때문. 기초학문이란 바로 이런 틀을 제공하는 학문

6. New Ganga Universities

- 6.1 뉴겐지스대학들은 실재하는 대학(한반도 남쪽에 많이 위치)
- 6.2 학부졸업요건은 최소 8학기 등록, 120~130학점에 해당하는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
- 6.3 학부 강좌에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공과목 및 전공위안 선택과목만 존재
 - 6.3.1 교양교육 전담기구의 지원·부속시설화(대부분의 국립대학교:전임 배속 불가능)
 - 6.3.2 배분이수제 도입 후, 전공기초로 교양분식
 - 6.3.3 전공위안 교과목 대거 도입
- 6.4 경향1: 기초학문 교과목 특히 인문학 교과목 (급속히) 위축 중
- 6.5 경향2: 대학 졸업 후 자기학습능력 급속히 하락 중
- 6.6 경향3: 대부분의 대학교수 교양교육에 대해 무지의 한계를 초월 중

TheCoreExperience.

How does the Core work? What do students gain from it? Below is a narrative of one student's academic career.

1st year	2nd year	3rd year	4th year
AUTUMN QUARTER - Readings in World Literature - Italian 101 My family speaks a dialect of Italian, but they never taught it to me, so I started from the beginning! <i>Ciao, mi chiamo Marcella.</i> - Calculus 131 WINTER QUARTER - Metabolism and Exercise Such a cool class! I recently ran into my old professor—over two years since I had him—and he not only remembered me but stopped to talk and wanted to know how everything was going in my life. - Readings in World Literature - Italian 102 - Calculus 132 SPRING QUARTER - Metabolism and Nutrition - Readings in World Literature This was a great chance to dive into books I might never have picked up otherwise. - Reading the Suburbs We approached classic 20th century American literature with an eye to the role that place and space play in shaping the American experience. - Italian 103	AUTUMN QUARTER - From the Annals of Wales to Monty Python and the Holy Grail: King Arthur in Legend and History - Italian 201 - Self, Culture, and Society We studied great thinkers from Durkheim to Freud. The class progresses from a discussion on the social theories of economics, to one on the lived experiences of culture, to one on the concepts of self and psychology. I really enjoyed conversations with my classmates on issues of class, identity, and even magic! WINTER QUARTER - Italian 202 - Chemistry and the Atmosphere - Self, Culture, and Society - Shakespeare I: Histories and Comedies SPRING QUARTER - Theories of Media - Lines of Transmission: Comics and Autobiography - Global Warming I really didn't know much about the science behind global warming until I took this class. - Self, Culture, and Society	AUTUMN QUARTER (STUDIED ABROAD) - Advanced Italian in Rome - Rome: Antiquity to Baroque <i>Ho amato l'Italia!</i> We studied in Italy for 10 weeks—we were based in Rome, but also traveled to other parts of Italy for field trips. I walked past the Pantheon every day on my way to Italian class! We maintained the discussion-based class structure from UChicago, but had those discussions on-site at the landmarks we were studying. WINTER QUARTER - Documentary for Radio - Academic and Professional Writing - The American Novel, 1880—1920 - Drama: Embodiment and Transformation SPRING QUARTER - Haunted Spaces, Suspect Cases: American Gothic, 1900—1960 - Italian 211 - Strategy - Summer Internship: Fox News Chicago Investigative Unit	AUTUMN QUARTER - Documentary Video I'm interested in broadcast journalism, so this class is definitely geared toward my career aspirations. - Beginning Screenwriting - History and Theory of Drama - Theater and Performance Studies BA Colloquium WINTER QUARTER - Introduction to Poetry - History and Theory of Drama 2 The professor is wonderful! I'd heard he's one of the greatest Shakespearean scholars alive, and after taking his class I definitely believe it. - Theater and Performance Studies BA Colloquium The projects in our colloquium (about 15 fourth-years) were all so different, but in the end we realized that they were all somehow connected. That, to me, is the Core in a nutshell. - Reading as a Writer: Chicago Genres "City on the Remake" SPRING QUARTER - Acting Workshop - Writing the Graphic Novel We explored texts and film from hieroglyphics to Hitchcock and learned about writing graphic novels as a business. - Form as Content: The Arts of Reading Fiction

시카고대학교의 교양교육 진행도(○:코어 교과목)

제1회 리베르타스 교양교육 심포지엄

[발표 IV]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

| 이영준 교수 | 경희대학교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교양교육-

이 영 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학장)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은 도덕의 기초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당나라 시인 두보는 <춘망(春望)>이라는 시에서 <국파산하재(國破山河在)>라고, 인간사의 가장 극단적인 사건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나라가 깨어져도 산천은 그대로 있다고 노래했다. 나라의 흥망조차도 자연의 장구한 질서에 비하면 보잘 것 없이 조그만 변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참상과 곤경을 이겨나갈 희망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 이 시인이 노래한 내용이다. 이 시는 천년을 넘겨가며 즐겨 인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 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젊은이들에게 그다지 설득력 있게 읽히지 않는다. 인간의 조작 능력에 의해 산천이 몇 년 안에 망가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면 두보의 시가 무색해진다. 인간이 자신의 육체적 범위에서 경험하는 시공간의 크기에 비해 대자연의 장구한 질서가 영원하고 무한한 것으로 여겨질 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기계문명으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인간이 해오던 거의 대부분의 연산을 대신하고 신문의 스포츠 기사까지도 쓰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한 것이 2016년 초 다보스 포럼에서의 일이다. 지금까지의 대학을 지배했던 지식은 독창성에 기반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고 고급지식을 얻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자원, 그리고 노력이 필요했다. 지식의 희소성이 대학의 권위를 만들어냈고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계급의 사람들에게는 차단되어 있었지만 지식이 이제는 거의 대부분 대중들에게 개방되었다. 극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접근 가능했던 고급 지식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산실로서의 대학은 인구 문제 뿐만이 아니라 지식 자체의 성격 변화 때문에 해체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학만이 제공할 수 있는 걸로 여겨졌던 고급 지식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다.

대학은 더 이상 희소성에 기반한 지식으로 그 존재 가치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시대를 맞아 대학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교양교육이다. 교양교육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통합성과 개방성의 시대를 맞아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이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너무나 빠른 변화 속에 지금까지 인정되어오던 권위의 무게는 매우 가벼워졌다. 미래를 살아가야 할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존의 지식이 아니다. 불확정성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갈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비판적 이성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윤리적 감성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기성 교육 체제가 해줄 수 있는 최대치인지도 모른다. 그 위에 자신이 설정한 가치를 등불 삼아 인류의 집합적 장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우리는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기대한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기, 고전 읽기는 대학 교양교육의 핵심이다. 교양교육이 단순한 지식의 집적이 아니라 폭 넓은 인간 이해에 기반하여 기존의 지식이나 주장을 의심하고 심문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인간을 길러야 한다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는 상상력을 함양해야 한다면 고전 읽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인류문명이 축적한 인간과 세계에 대한 탐구와 이해는 고전에 그 핵심적 성취가 보존되어 있다. 세계화를 통해 지구적 융합문명 단계에 처한 오늘의 현실은 협소하게 정의된 전문 영역의 단편적인 지식과 문명에 대한 국지적 이해를 넘어선 인간을 요청한다. 대학은 이러한 현실에 걸맞는 교육으로 미래 사회를 만들어갈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교양교육의 핵심에 고전 읽기가 놓여 있다.

경희대학교는 교양교육의 개혁을 위해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설립하고 융복합적이고 학제적인 교양교육을 위해 교과조직 전체를 새로 구상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교육 모델에서 고전 읽기 교육이 그 뼈대를 이루고 있다. 경희대학교의 고전교육 현황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양교육 체제와 긴밀하게 엮여 있으므로 우선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육체계를 일별할 필요가 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경희대학교의 교시를 구현하기 위해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교양교육 체계를 이어받으면서도 대학 본연의 근본적인 탐구 정신을 회복하면서 세계화와 융합문명의 도래라는 시대변화에 걸맞게 일신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되었고 2011년 봄학기부터 새로운 교과과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래에 소개하는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교양교육 체제의 대강은 후마니타스 칼리지 소개 책자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요약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설정한 교양교육의 임무

대학의 여러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교양교육은 대학의 존재이유와 목적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약한 초급학년 학부생을 주 대상으로 해서 그가 대학에 왜 들어왔는지, 대학은 무엇을 하는 곳이며 그가 대학에서 길러야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인지에 관한 방향 잡아 주기에서부터 그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사회와 문명에 지고 있는 책임은 무엇인가,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에의 응답을 탐색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의 변화와 형성에 불가결한 성숙의 조건들을 최대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것이 대학 교양교육의 임무이고 책임이다. 바로 이런 책임 때문에 대학은 신입생들이 입학 초기부터 한 가지 전공에만 몰입하게 하거나 입학하자마자 취업훈련부터 받게 하는 좁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대학은 기계를 길러내지 않고 인간을 길러낸다. 협소성의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는 교육이 교양교육이다. 영혼이 없는 탁월성은 탁월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2.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

‘아이가 어른 되는’ 성숙의 조건들은 열아홉 살 청소년에게는 거대한 모험이고 도전이다.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는 그때까지 그가 의존해왔던 부모, 학교, 선생님의 긴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독립된 ‘정신의 삶’(life of the mind)을 시작해야 한다. 대학에서 그는 자

기가 누구이고 타인은 누구이며 그가 사는 세계는 어떤 곳인지, 자신의 삶을 이끌 가치, 이상, 목적은 어떤 것일 수 있는지를 탐색해야 한다. 대학 입학과 함께 그는 자신을 책임지고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질 준비를 해야 한다. 정신이 의존상태를 벗어나 독립의 단계로 이동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졌던 것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의식한다는 것은 성숙의 조건들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며 동시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다수의 신입생들이 그 도전을 감당하지 못해 혼란, 방황, 도피에 빠지게 된다. 이런 혼란과 방황이 장기화되면 4년간의 대학 생활은 큰 타격을 받고 헛되이 공전하게 된다. 학부생이 대학의 도전에 잘 대응하고 즐겁게 응전하면서 자신을 변모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끌고 지원하는 것,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의 양성이라는 대학교육의 본질 목적을 교양교육의 차원에서 실현해나가는 것—이것이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이다.

3. 교양교육의 최종 목표

학부생의 성숙을 돕는 일이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라면, 교양교육의 최종 목표는 한 인간이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의미 있고 행복한 방식으로 자신의 한 생애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할 내적 견고성의 바탕을 길러주는 데 있다. 삶이 안길 수 있는 온갖 어려움과 영욕의 순간에도 한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고 의미와 가치를 공급해주는 것이 내적 견고성이라는 바탕이다. 이 바탕이 ‘교양’(culture)이다. 이 의미의 교양은 한두 해의 교양교정 학점을 따는 것으로 달성되지 않고 대학 졸업장이나 무슨 자격증 같은 것으로 획득되지 않는다. 교양은 대학 졸업을 위한 한시적 절차도 수단도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교육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이다. 대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가치, 교육의 최종 효과가 교양이다. 그 교양은 단순 지식이 아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이 다 잊혀지고 다른 지식들로 대체되어도 여전히 내게 남아 나를 지탱하는 강한 힘, 대학에서 들은 강의의 내용들이 기억에서 사라지고 성공과 영광의 순간들이 다 지나갔을 때에도 여전히 내 몸에 남아 나를 지키는 무형의 자산, 그것이 교양이다. 세월이 바뀌고 삶의 외적 조건들이 바뀌어도 이 자산은 줄어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더 성숙한 인간, 더 나은 인간, 더 유용한 인간을 최종적으로 정의해주는 것은 이런 의미의 교양이다. 예컨대 의사와 변호사와 경영인, 전문가와 책임인자가 이런 교양의 인간일 때 그들은 분명 더 나은 의사이고 변호사일 것이며 더 나은 경영인, 전문가, 책임인자일 것이다. 대학 교양교육은 그 궁극적 목표로서의 교양, 교육의 정점으로서의 교양을 망각할 수 없다.

4.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의 지향점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를 바탕에 깔고 그것의 궁극적 목표를 복극성으로 삼아 다음의 다섯 층위에서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의 지향점들을 설정한다.

① 인간, 사회, 자연, 역사에 대한 다각적 이해방식들을 폭넓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 분야들을 관심대상, 접근법, 사유원칙들을 기본 수준에서 이해하게 하는 교육,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어 대학에서 자유롭고 창조적인 탐구활동과 정신 가꾸기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의 지향.

② 온갖 정보와 지식, 상충하는 진리 주장들, 상이한 가치관, 경쟁적 주장과 의견 등을 이성적으로 검토하여 오류와 편견을 가려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중요한 문제들을 찾아내며 합리적 설명, 타당한 주장, 설득력 있는 해석을 추구할 능력을 길러주고 과학적 사고습관과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교육의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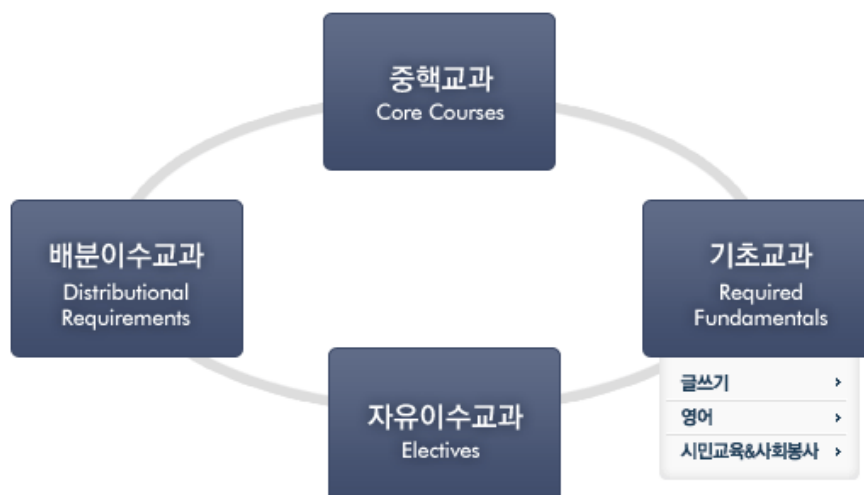
③ 성찰의 능력과 습관을 길러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알게 하는 교육,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분별할 힘을 키워주며 자신이 사는 사회의 민주적 원칙들을 지키고 발전시킬 시민적 역량들을 터득하게 하는 교육, 계층과 신분, 종교, 지역, 성차 등의 벽을 넘어 타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는 능력, 선의와 배려와 공감의 공동체적 가치들을 체득하게 하고 사회봉사의 정신을 길러주는 교육의 지향.

④ 유연한 상상력, 열린 정신, 지구사회적 마음가짐으로 두려움 없이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고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힘을 길러주는 교육,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세계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과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 인류 공통의 관심사를 인지함과 동시에 국적, 인종, 집단의 울타리를 넘어 지구사회 공통의 문제들을 풀어갈 세계 시민적 역량을 길러 주는 교육의 지향.

⑤ 사건, 현장, 상징, 텍스트를 정확히 읽고 의미와 해석을 구성해내는 능력, 문서 생산력, 아름다운 것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심미적 교감과 표현의 능력, 예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예술적 창조성을 존중하는 능력,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사회의 역사적 경험들을 공유하며 좋은 이야기의 사회적 유통을 촉진할 소통과 전달의 능력, 새로운 기술매체들을 유효하게 사용할 문화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의 지향.

5.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양교과 구조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과 구조 개관



경희대학교의 교양과목은 아래와 같이 네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네 트랙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기본적인 탐구영역과 핵심주제를 공통의 탐구경험으로 공유하고자 설계되었다. 이상의 네 영역은 다음과 같은 이수 학점체제를 갖추고 있다.

경희대학교 교양과정 기본구조와 이수학점

구분/영역	과목명	이수학점	이수 학년	비고
중핵교과 (문명전개의 지구적 문맥 I II III)	인간의 가치 탐색	3학점	1학년	1학년 1학기 필수
	우리가 사는 세계	3학점	1학년	1학년 2학기 필수
	빅뱅에서 문명까지	3학점	전학년	
	학점 소개	9학점		
기초교과 - 기초필수 영역(글쓰기, 영어) - 시민교육 영역(시민교육)	글쓰기 1	2학점	1학년	1학년 필수 (3시간 2학점)
	글쓰기 2	2학점	2학년	2학년 필수 (3시간 2학점)
	대학영어	2학점	1학년	1학년 필수 (3시간 2학점)
	시민교육	3학점	1학년	1학년 필수 (3시간 3학점)
	학점 소개	9점		
배분이수교과 -생명, 몸, 공생 체계 영역 -자연, 우주, 물질, 기술 영역 -의미, 상징, 공감 영역 -사회, 공동체, 국가, 시장 영역 -평화, 문화, 소통 영역 -세계, 문화, 소통 영역 -논리, 분석, 수량세계 영역	7개 영역 중 4개 영역 필수 선택	12학점 이상	전 학년	각 과목 3시간 3학점
	학점 소개	12학점 이상		
자유이수교과	자유이수 과목	3학점 이상	전학년	외국어, 체육, 예술, 기타
	학점 소개	3학점		
교양 이수학점 합계		33학점이상	최대 56학점까지 인정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융복합적 학제적 교과 조직

- 기초교과(fundamentals): 외국어와 글쓰기 (공통필수), 시민교과(civic education): 시민교육/사회참여학습/봉사의 도입 (공통필수)
- 중핵교과(core courses)군 (공통필수 두 과목):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학제적 통합 목표: 인간의 이해, 세계의 이해
- 배분이수교과(distributional courses): 주제 중심의 선택적 필수교과군, 고전읽기 과목으로 대체 가능.
- 자유이수교과(electives): 고전읽기 20과목 포함, 자유로운 선택과목군 (예술/실기과목 포함).

여기서 시민교과, 기초교과, 중핵교과는 강의시간과 강사를 선택하는 것 외에는 공통필수과목으로서 졸업의 필수요건이며 배분이수교과와 자유이수교과는 필수이되 선택이 가능하다. 이러한 교과 조직에서 고전은 각 교과단계에서 점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고전읽기라는 과목명을 가진 과목은 자유이수과목에 속해 있다. 하지만 자유이수과목에 속해 있다고 해서 고전읽기의 중요성이 약화되지는 않는다. 교양과목의 전체 배분에서 가장 많은 과

목군을 차지하고 있는 배분이수교과의 일곱 개 영역에서 다섯 영역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인데, 고전읽기 다섯 과목으로 배분이수 교과 이수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교양과목 최저이수 학점인 35학점에서 고전읽기 과목으로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다.

6. 중핵과목에서의 고전 읽기

경희대학교의 모든 신입생은 1년 동안 기초교과인 글쓰기와 영어 외에 중핵교과를 필수적으로 수강하게 되어 있다. 1학기에는 인간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인간의 가치 탐색>, 2학기에는 세계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우리가 사는 세계> 과목을 수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두 강좌를 위해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읽기 교재를 편집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고전 읽기에 대한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접근법을 알 수 있다.

6-1. <인간의 가치 탐색>

이 교재는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 인간의 가치 탐색 (Civilizations in Global Context: Human Quest for Values)>라는 긴 제목을 달고 있다. “문명 전개의 지구적 문맥”이라고 해서 이 책이 문명 전개 과정을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과목은 아니다. 특정 문화나 종교, 사상 등의 가치체계나 이념을 위로부터 아래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과목은 더욱 아니다. 이 과목의 목표는 ‘인간의 이해’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킨 인간 이해의 복잡, 다양한 인간 이해를 일관된 하나의 관점에서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를 달리 하는 다양한 고전으로부터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데 익숙하도록 인도하여 자기발견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인류문명을 만들고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왔는가를 탐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교재가 택한 관점은 인간은 자신의 가치, 의미, 목적을 스스로 발명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기초해서 인류 문명이 발명한 가치들을 제시하고 그 가치를 자신의 관점에서 질문하고 자신의 삶에 연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교과목을 통해서 수강생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인문적 가치를 내재화하여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가령 <인간은 사랑을 추구하는 동물>이라는 주제로 구성된 장에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등 고전에서 발췌된 사랑에 관한 글들을 읽고 진화생물학이 판단하는 사랑과 비교한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사랑이 인류사의 공통 가치라는 것을 가르친다. 물론 이 교과목은 지식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격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 과목의 주된 주제는 <사랑> <정의> <소유와 행복> <공동체> <개인> <삶의 문법> 등이다. 이 과목을 수강한 뒤 수강생이 자신이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으로서 주체적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인류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는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재를 설계했다.

고전읽기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교재는 고전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근본적 질문을 숙고하도록 여러 관점의 질문을 부과하고 있다. 즉, 고전이 함축하고 있는 근원적 질문의 입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좀더 충분한 숙고는 <고전읽기>과목이나 배분이수 과목을 통해 심화 학습된다는 가정하에 중핵과목으로 설정된 것이다.

6-2. <우리가 사는 세계>

이 과목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자연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가 고 통스런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돌파하면서 발견하고 발명하고 획득해온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고전적인 저술들을 발췌해서 구성되어 있다. 가령 현대의 과학문명의 뿌리를 과학혁명에서 찾고 당시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어떤 문제의식이 과학혁명을 탄생시켰는가를 당시의 문서를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그후 발전해온 현재의 세계에서 과학적인 정신과 방법이 어떻게 삶을 만들어가는가를 깨우치도록 한다. 이 과목은 한국 사회를 운영하는 근대적 가치들이 아직도 완전히 삶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를 학생들과 함께 탐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탐구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이끄는 데 중점을 둔다. 주된 내용은 <과학혁명> <계몽사상> <정치혁명> <경제혁명> <개인의 탄생> <근대공간> <동아시아의 근대> <한국의 근대> <근대비판> <세계의 문제들> 등으로 구성된다. 이 교재에서도 근대의 고전들에서 발췌한 문서들이 질문을 이끌고 현재의 문명이 기초한 사고틀에 대한 질문과 탐구를 이끈다. 이 과목 역시 고전적 저술들에서 제기하고 있는 핵심적 질문들을 숙고하도록 인도하여 좀더 심화, 확장된 학습을 <고전읽기>나 배분이수 과목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7. 고전 읽기 과목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고전 읽기 과목을 개설한 것은 2012년 봄학기부터 시작되었다. 2012년 봄학기에 개설한 고전읽기 과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봄학기 신규 개설과목		서울 캠퍼스	국제 캠퍼스
	1	고전읽기: 플라톤	고전읽기: 이광수
	2	고전읽기: 제인 오스틴	고전읽기: 정약용
	3	고전읽기: 호메로스	고전읽기: 과학혁명의 구조 외
	4	고전읽기: 고문진보	고전읽기: 그리스 비극
	5	고전읽기: 명심보감	고전읽기: 셰익스피어
	6	고전읽기: 성서	고전읽기: 도스토옙스키
	7	고전읽기: 사기	고전읽기: 루쉰
	8	고전읽기: 대학 논어 맹자 중용	고전읽기: 박경리 토지
	9	고전읽기: 노자 장자	고전읽기: 니체
	10	고전읽기: 황순원	고전읽기: 자본론

이 과목들은 2012년 가을학기에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에서 교차 개설되었으며 이러한 학기별 교차 개설은 2015년까지 계속되었고 2016년 봄학기에는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다.

2016년 봄학기 고전읽기 개설과목		서울 캠퍼스	국제 캠퍼스
	1	고전읽기: 막스 베버	고전읽기: 이광수
	2	고전읽기: 김수영	고전읽기: 정약용
	3	고전읽기: 인도신화	고전읽기: 과학혁명의 구조 외
	4	고전읽기: 톨스토이	고전읽기: 그리스 비극
	5	고전읽기: 퇴계	고전읽기: 셰익스피어
	6	고전읽기: 논어	고전읽기: 도스토옙스키
	7	고전읽기: 무라카미 하루키	고전읽기: 루쉰
	8	고전읽기: 장 자크 루소	고전읽기: 박경리 토지
	9	고전읽기: 삼국유사	고전읽기: 니체
	10	고전읽기: 이규보	고전읽기: 자본론

이 과목들을 개설하면서 내세운 강의 진행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고전읽기 과목은 대학 신입생들을 주된 수강대상으로 한다.
2. 고전읽기 과목은 수강생들이 해당 텍스트를 처음 대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어도 수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3. 교강사는 해당 텍스트를 수강생들이 자력으로 독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에 상응하는 한글 번역본을 텍스트로 사용한다.
4. 수업 진행은 세미나 형식이다. 수강생들은 수업에 오기 전에 해당 텍스트를 읽고 수업에 임해야 하며 수업시간에는 자신들이 읽은 해당 텍스트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한다.
5. 교강사는 세미나를 잘 이끌도록 수업에 해당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해당하는 핵심적 질문으로 수강생을 이끌도록 준비하고 세미나 형식의 수업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해야 한다.
6. 과목당 한 학기 독파 분량은 2천 페이지 내외로 하며 소설의 경우는 3천 페이지 내외로 한다.
7. 고전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2차 문헌은 최소화해야 한다.
8. 교강사는 해당 텍스트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제공하여 해당 텍스트의 이해를 돕는다. 하지만 2차 문헌을 강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도록 한다.
9. 교강사는 자신의 해석이나 접근 방법을 수강생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번역본을 텍스트로 사용하는 경우, 수강생들이 대학 신입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독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텍스트를 읽어나가는 데 필요한 참고 자료는 미리 알려준다.

11. 해당 텍스트가 제기하고 있는 핵심적 질문이 무엇인가를 수강생들에게 숙지시키고 그 질문에 대한 텍스트의 대답에 대한 토론이 수업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
12. 해당 텍스트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유도한다.
13. 해당 텍스트와 반대되는 입장의 텍스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텍스트의 입장을 발전시킨 텍스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수강생들에게 알려준다.
14. 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소논문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상의 원칙은 교수자들에게 모두 공지되어서 과목 개설 의도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였고 2012년 봄학기에 20과목을 신설해서 강의를 실시했다. 교수자의 기존의 교수 방법과 다른 방식의 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교수자 자신만의 교수 방법을 고수한 경우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호응은 좋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강의 평가 2012년 평균 87점, 2013년 평균 89점)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설립되기 전부터 경희대학교는 <독서와 토론>이라는 교양필수 과목을 개설해서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다수의 교수자들은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과목의 강의에 상당히 익숙한 편이어서 고전읽기 과목도 그런 과목의 연장선에서 교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문제의식 중심의 고전 읽기, 즉 고전에서 제기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이며 그것이 현재의 나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찾아가는 주제의식이 강화된 고전읽기는 다소간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의 연구가 요청된다는 의견이 다수 도출되었다.

첫학기에는 홍보도 충분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수강 의지가 그다지 뚜렷하지 않아서 총 40명으로 설정된 수강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강의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학기가 지나면서 차츰 홍보가 되었고 2014년도 봄학기에는 전 과목이 모두 수강인원을 채웠다. 일부 교수자들은 해당 텍스트를 수강생들이 사전에 읽어오는 비율이 낮아서 애초에 설정한 원칙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알려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리고 세미나식 수업에 익숙치 않은 신입생들이 수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수업진행 방식을 중도에 바꾼 경우도 더러 있었다. 지난 4년간의 고전읽기 과목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교수진 워크숍을 2016년 여름에 개최하여 고전 읽기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는 그간 고전 읽기 과목을 발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앞으로 개설 가능한 과목을 개발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100과목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과목 개설은 본교의 정책적 사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으나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설립 정신에 비추어보면 희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간 수립한 개설과목 명단은 아래와 같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고전 읽기 과목 개설 계획

번호	과목명	비고
1	고전읽기: 대학 논어 맹자 중용요	2012-2015년 개설 과목
2	고전읽기: 노자 장자	2012-2015년 개설 과목
3	고전읽기: 고문진보	2012-2015년 개설 과목

4	고전읽기: 호메로스	2012-2015년 개설 과목
5	고전읽기: 정약용	2012-2015년 개설 과목
6	고전읽기: 제인 오스틴	2012-2015년 개설 과목
7	고전읽기: 20세기 과학고전	2012-2015년 개설 과목
8	고전읽기: 플라톤	2012-2015년 개설 과목
9	고전읽기: 사기	2012-2015년 개설 과목
10	고전읽기: 성서 (구약 신약)	2012-2015년 개설 과목
11	고전읽기: 황순원	2012-2015년 개설 과목
12	고전읽기: 이광수	2012-2015년 개설 과목
13	고전읽기: 자본론	2012-2015년 개설 과목
14	고전읽기: 셰익스피어	2012-2015년 개설 과목
15	고전읽기: 그리스비극	2012-2015년 개설 과목
16	고전읽기: 박경리 토지	2012-2015년 개설 과목
17	고전읽기: 니체	2012-2015년 개설 과목
18	고전읽기: 도스토옙스키	2012-2015년 개설 과목
19	고전읽기: 루쉰	2012-2015년 개설 과목
20	고전읽기: 명심보감	2012-2015년 개설 과목
21	고전읽기: 삼국사기 삼국유사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22	고전읽기: 퇴계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23	고전읽기: 율곡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24	고전읽기: 박지원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25	고전읽기: 존 롤스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26	고전읽기: 염상섭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27	고전읽기: 박완서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28	고전읽기: 나쓰메 소세키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29	고전읽기: 천안문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30	고전읽기: 단테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31	고전읽기: 돈키호테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32	고전읽기: 홉스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33	고전읽기: 애덤 스미스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34	고전읽기: 발자크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35	고전읽기: 괴테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36	고전읽기: 안톤 체호프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37	고전읽기: 카뮈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38	고전읽기: 프란츠 카프카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39	고전읽기: 헤밍웨이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40	고전읽기: 플로베르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41	고전읽기: 가브리엘 마르케스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42	고전읽기: 진화론 찰스 다윈 외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43	고전읽기: 프로이트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44	고전읽기: 게오르그 짐멜	2016년 이후 개설 후보과목
45	고전읽기: 18, 19세기 모험소설	추가 신설 과목
46	고전읽기: 고전 추리소설 (에드거 앨런 포, 코난 도일)	추가 신설 과목
47	고전읽기: 고전페미니즘 (성의 역사, 성의 정치학, 여성의 신비)	추가 신설 과목
48	고전읽기: 고전 동화 (그림형제, 루이스 캐럴)	추가 신설 과목
49	고전읽기: 괴물 소설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	추가 신설 과목
50	고전읽기: 김수영	추가 신설 과목
51	고전읽기: 당시선 (당시삼백수)	추가 신설 과목
52	고전읽기: 레비스트로스	추가 신설 과목
53	고전읽기: 르네상스 문화 (다빈치, 알베르티, 부르크하르트)	추가 신설 과목
54	고전읽기: 릴케	추가 신설 과목
55	고전읽기: 마샬 맥루한	추가 신설 과목
56	고전읽기: 마르크트웨인 (허클베리 핀의 모험)	추가 신설 과목
57	고전읽기: 마키아벨리	추가 신설 과목
58	고전읽기: 막스 베버	추가 신설 과목
59	고전읽기: 몽테뉴	추가 신설 과목
60	고전읽기: 버지니아 울프	추가 신설 과목
61	고전읽기: 베케트	추가 신설 과목
62	고전읽기: 보들레르	추가 신설 과목
63	고전읽기: 보르헤스	추가 신설 과목
64	고전읽기: 브레히트	추가 신설 과목
65	고전읽기: 빅토르위고 레미제라블	추가 신설 과목
66	고전읽기: 사르트르	추가 신설 과목
67	고전읽기: 삼국지연의	추가 신설 과목
68	고전읽기: 생존자 문학 (프리모 레비 등)	추가 신설 과목
69	고전읽기: 제자백가 (목자, 한비자, 손자)	추가 신설 과목
70	고전읽기: 수호지	추가 신설 과목
71	고전읽기: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추가 신설 과목
72	고전읽기: 스탕달	추가 신설 과목

73	고전읽기:아리스토텔레스	추가 신설 과목
74	고전읽기: 아리스토파네스	추가 신설 과목
75	고전읽기: 아우구스티누스	추가 신설 과목
76	고전읽기: 에리히 프롬	추가 신설 과목
77	고전읽기: 오비디우스	추가 신설 과목
78	고전읽기: 이상	추가 신설 과목
79	고전읽기: 일본 문명 (후쿠자와 유키치, 국화와 칼 외)	추가 신설 과목
80	고전읽기: 임꺽정	추가 신설 과목
81	고전읽기: 장 자크 루소	추가 신설 과목
82	고전읽기: 제3세계 문학	추가 신설 과목
83	고전읽기: 인류학	추가 신설 과목
84	고전읽기: 조지 오웰	추가 신설 과목
85	고전읽기: 찰스 디킨스	추가 신설 과목
86	고전읽기: 천일야화	추가 신설 과목
87	고전읽기: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타	추가 신설 과목
88	고전읽기: 총, 군, 쇠.	추가 신설 과목
89	고전읽기: 최인훈 (광장, 회색인)	추가 신설 과목
90	고전읽기: 심리학	추가 신설 과목
91	고전읽기: 선불교	추가 신설 과목
92	고전읽기: 토니 모리슨	추가 신설 과목
93	고전읽기: 초기불교 (아함경 외)	추가 신설 과목
94	고전읽기: 톨스토이	추가 신설 과목
95	고전읽기: 파스칼의 팡세	추가 신설 과목
96	고전읽기: 판소리 다섯마당	추가 신설 과목
97	고전읽기: 종교학 (엘리아데 외)	추가 신설 과목
98	고전읽기: 헤로도토스 역사	추가 신설 과목
99	고전읽기: 홍대용	추가 신설 과목
100	고전읽기: 환경 생태론 (작은 것이 아름답다, 침묵의 봄, 오래된 미래)	추가 신설 과목

고전 읽기 운동과 후마니타스 칼리지 선정 고전 명저 300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2012년 가을부터 학생들에게 고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대학 내에 고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2013년 봄부터 대학신문에 <고전의 사계>라는 연속 기획물을 시작하여 매주 한권의 고전을 소개하는 칼럼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연속 기획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별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 지속될 예정이다. 그리고 2012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통해 고

전 추천 목록을 작성하였고 2013년 신입생들에게 300권의 추천 고전 목록을 완성했다. 이 목록은 향후 개설될 고전 읽기 과목의 기본 자료이며 매년 신입생들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팸플릿 형태로 제공된다.

고전읽기와 주제적 접근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고전읽기를 교양교육의 핵심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그 접근법은 주제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고전을 고전 자체로, 즉 완결적인 텍스트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관점에서 문제의식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의미이다.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정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질문을 찾기 위해서이며 현재 우리는 어떤 핵심적 질문을 가지고 그 해결책을 구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찾아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인간은 자신을 발명하는 존재라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문명은 인간이 자신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한다는 점에 주목해서 고전으로부터 대학생들이 자신의 문제의식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권고한다.

그래서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고전 텍스트 자체에 이르는 길을 여러 주제를 통해 소개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류문명을 만든 100가지 핵심 개념> 동영상 시리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진들의 강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핵심 개념 시리즈는 현재까지 50개가 완성되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강의 지원 부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중핵 과목인 <인간의 가치 탐색>과 <우리가 사는 세계> 과목의 동영상 부교재를 만들었을 때도 학생들이 이 과목에 이르는 길이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 왜 그런 주제가 인간의 가치, 삶의 의미와 목적에 어떤 식으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 문명에는 당대 인간들의 핵심적 문제 의식이 살아있으며 그것은 현재의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점을 알려준다.

8. 고전읽기 과목의 실제 운영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지난 4년간 고전읽기 과목을 운영하면서 강사들이 경험한 내용은 차후 개선의 여지를 잘 보여준다. 교육 현장에서 실제 가르쳐온 강사들의 강의 운영 경험은 각기 달라서 일원화하기엔 어려움이 많지만 문학, 철학, 사회과학의 대표적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박경리 『토지』 읽기

강좌목표: 『토지』를 실제로 체험하는 것, 문자 그대로 학생이 직접 읽기.

전체 5부(20권) 중 1,2부(8권)을 완독하는 것이 목표

강의 진행방식

- (1) 예습(미리 읽고) - 읽기메모 제출(해당 주차 강의시간 이전): 수강생 전원.
- (2) 각 권에 대한 심화 발표 - 조별 발표 또는 개인 발표
- (3) 각 권에 대한 조별 토론 (토론 문제는 심화 발표에서 제시) 후 결과 발표
- (4) 각 권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

특기 사항

학생들에게 문자 그대로 고전읽기라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독서체험 이상의 의미를 도출해내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음

특히 『토지』의 경우 전체 20권의 내용 중 일부만을 한 학기에 소화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음

- 임시 방편의 해결방안

(1) 2015년 1학기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후속세미나를 조직, 35명 중 5명의 학생들이 7월 여름방학부터 주 1회의 『토지』읽기 모임을 했고, 이후 완독했음.

(2) 2015년 2학기의 경우, <독립연구>의 방식으로 희망학생의 신청을 받고, 심화연구를 실시. 7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세미나 조직하고 20권을 완독, 이중 4명의 학생들이 <독립연구>팀으로 발전하여 현재 단체 보고서를 작성 중

평가

읽기메모 25%, 리포트(중간고사 대체) 25%, 기말고사 20%발표 15%, 토론 10%, 출석 5%

- 제출한 읽기메모(정량 평가) 후 교수자의 코멘트 첨삭 후 돌려줌, 생각할 거리로 채택된 읽기메모는 전체 공유.

- 중간고사 리포트는 『토지』 1,2부를 아우르는 종합주제를 채택,

자유주제 방식이나 스스로 주제를 개발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토지』에 등장하는 인물 중 롤모델을 선택해서 그 이유를 분석하게 하도록 권유.

개선 방안

- 강독 이후 후속 심화 코스 필요. 이런 점에서는 현재 <독립연구>의 방식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고전읽기 텍스트에 따라, 기존 교양교과와 확실한 연계성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문학고전의 경우, 중핵교과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측면이 많음.

사례 2 —그리스 비극

강좌목표: 소포클레스의 3대 비극 <오이디프스왕>, <안티고네>, <콜로노스의 오이디프스> 완독.

강의 진행방식

영어원전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강독. 데이비드 그린의 번역한 시카고대학출판부 판을 주교재, 쉽게 번역한 캠브리지대학 출판부판을 보조교재로 사용..

-처음에는 너무 전공 같아서 걱정이 되었으나 생각과 달리 학생들이 열심히 수강, 학생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과목이기 때문.

-수강인원: 주로 3, 4학년. 50명 이하

- 강의 후 활발한 조별 내용 토론 발표. 학생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험을 위한 읽기가 아니라 깊고 폭넓은 그리고 깊은 읽기를 하고 있어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글로 설명할수 없는 미묘한 단어의 차이를 알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

- 2500년 전의 작품을 현대적 문맥에서 파르마코스, 오이디프스 콤플렉스, 희생양, 비극, 오염된 정체성, 빛과 어둠, 이성과 광기의 관점에서 새롭게 독해.

특기 사항

- 주로 3, 4학년이어서 독해에 적극적.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독해.
- 일부 수업준비가 부족한 학생들의 수동성 문제 있음.
- 취업과 시험 그리고 생활영어가 아닌, 고전 독해에서 오는 즐거움과 의의에 대한 자각.

평가

별도의 과제 없이 조별 토론 발표,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례 3 — 플라톤 「국가」

강좌목표: 플라톤의 「국가」 완독

강의 진행방식

- 원전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플라톤 철학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하고, 그 다음 원전의 내용에 대한 해제, 배경 설명, 비평 등의 안내.
- 원전의 분량이 방대해서 강독 방식의 수업진행은 불가능.
- 조별 요약 발표를 한 다음, 원전의 내용과 관련된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
- 과제는 기말에 소논문을 1회 제출. 과제 주제는 원전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자유선택. 교수는 학생들이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미리 논문의 개요를 받고 그 개요에 대한 논평을 통해 소논문이 논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 수 있게 사전 면담 실시.

특기 사항

- 원전의 철저한 이해를 토대로 발표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
- 토론 주제도 원전 이해와 관련된 토론 주제 및 원전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을 현대의 문제와 연결 지은 토론거리를 준비해서 깊이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담.
- 매주 토론 분량의 원전을 미리 읽게 관리
- 매주 수업 부분을 사전에 요약하는 과제를 부과.
-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상세한 보충 설명.

토론

- 토론의 진행은 세 단계로 진행한다. 첫째, 제시된 토론을 주제를 갖고 조별로 토론한다. 둘째, 토론 결과를 조별로 발표한다. 셋째, 조별로 발표한 토론 결과를 가지고 조별로 상호 질문하고 토론한다.

평가

- 평가는 평소의 발표와 토론 및 과제(소논문) 중심으로 시험과 출석 등을 종합.
- 출석(20%), 과제(30%), 발표 및 수업참여도(30%), 시험(20%)

사례 4—마르크스 「자본론」

강좌목표: 마르크스 「자본론」 완독

강의 진행 방식

강의에 크게 의존. 학생들이 경제학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텍스트를 읽는 것만으로는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조차 이해하지 못함. 강의 후 해당 내용에 대한 토론 진행

강의내용

수업시간에는 마르크스가 비판하고자 했던 고전경제학의 내용(아울러 20세기 현대경제학)과 마르크스의 이론을 대조하면서 설명. 그리고 그 이론들이 현실의 경제를 설명하는 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질의와 응답, 토론 시간을 가짐. 수업에서는 자본론 1권만 다루기 때문에 2,3권의 주요 내용도 수업시간에 보충 설명. 마지막 3, 4주 동안은 자본론의 내용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의 역사와 오늘의 경제를 설명, 이때는 부교재를 사용하여 보충함.

과제

「자본론」 중에서 중요한 부분 4~6파트를 지정해서 과제 부여: 1.기본적인 내용을 우선 요약하고, 2.독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3.자신의 해석과 의견을 문서로 작성하여 수업 이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강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서 해당 파트에 대한 충분한 독해를 돕는다. 피드백에 소요되는 시간이 큰 문제.

토론 및 발표

다른 고전읽기 수업과 달리 일단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기 때문에 발표시간은 갖지 않음. 토론은 주로 강의가 후반부에 학생들이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해 어느 정도 상을 가지면 현대 경제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이루어짐. 오늘의 현실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을 때에는(주로 서울캠)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주로 질의, 응답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음.

평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고 과제성적과 합산.

특기사항: 「자본론」은 글이 아주 난해하고 번역도 쉽지 않음. 1권만 다룬다고 해도 분량이 워낙 많아서 학생들은 거의 두 강좌 듣는 정도의 부담. 그래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음^^ 자본론을 고전읽기 과목에 넣는 것보다는 <자본론과 현대경제의 역사>같은 강의를 새롭게 개설하여 배분이수과목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

9. 고전 읽기 과목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지난 4년간 고전읽기 과목을 운영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그간 교수자들과 학생들이 토로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해당 텍스트의 번역이 현재의 학생들의 이해에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다. 고전 번역 자체의 정확성도 문제이거나 오래된 번역의 경우에는 일본식 어휘나 문장 등이 현재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어, 텍스트 선정에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영어 원서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고전읽기 과목의 성장, 확대를 위해서 적절한 번역 작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 2) 철학서의 경우 널리 알려진 작품이지만 난이도가 높아서 고전읽기 과목이 요청하는 토론을 수행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강의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일부 교수자들의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 문제는 원서 자체의 난해성과 번역의 문제도 개재되어 있지만 이해에 핵심이 되는 중요 개념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교수자의 능력이 요청되며 이와 동시에 학생들의 독해 능력 제고에 관한 문제 등 현재의 교육환경이 연관된 복합적인 문제로서 좀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 3) 종교서적의 경우, 그 텍스트를 어떤 관점에서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도 교수법의 측면에서 깊이 숙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가령, <성서>의 경우, 종교성을 제거하고 그것을 문학적이고 신화적인 텍스트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다.
- 4) 동양 고전의 경우, 한자 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한글 번역본 위주로 읽게 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당 텍스트의 독해에 필요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지식의 설명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면서 토론 시간의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동양 고전은 한국의 전통 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어 한국의 전통 사상을 현재의 관점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좀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 5) 문학서의 경우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도는 높지만 독서 가이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론이 원활하지 않았다. 인상적인 부분을 말하게 해서 개인적인 관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작품 이해로 이끄는 방식이 효율적이었다. 희랍비극이나 셰익스피어의 경우 일부 텍스트는 영문 독해를 병행하여 심도 있는 이해를 도왔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즉 일부 학생들은 아주 환영하였으나 일부 학생들은 거부반응을 나타냈다.
- 6) 과학 고전의 경우에는 전공자의 희소성 때문에 강사 선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 7) 고전을 독파한 경험이 전무한 학생들에게 한 학기동안 천페이지가 넘는 고전을 읽도록 하고 과제를 부과하여 토론하게 하는 것은 매우 모험적이어서 학생들의 저항과 포기가 많았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 8)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에도 고전읽기 과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고전읽기 과목이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을 교수자들이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다.
- 9) 세미나식 교수법에 익숙하지 않은 교수자들은 기존의 강의식 교수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교수법이 고전읽기과목에

도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문학과목의 경우 일부 교수자들이 연극적인 교수법을 택해서 성공적인 경우가 있었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10) 임시위주의 독해 방식에 익숙한 학생들이 자기 발견의 독서 훈련이 부족하여 생기는 곤혹감을 넘어서 비판적 사고에 이르도록 이끄는 교수법 개발이 시급하다. 텍스트를 읽고 단답형 정답을 찾는 독해 방식에 길든 학생들에게 고전을 비판적으로 읽고 깊이있는 인간 이해에 이르도록 이끄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수자들이 많다.

이상과 같은 현상은 현재 <고전읽기> 과목이 아직도 시행 초기 단계여서 발생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교양과목이 전공자에 의해 가르쳐지는 경우 전공과목 강의 형태와 닮아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주목을 요할 만한 교육 실험이 되겠지만 문학전공자가 20세기 과학고전을 가르친다거나 사회학 전공자가 희랍 비극을 가르칠 경우,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고민은 한국 대학의 교양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응전의 모색이다. 하지만 고전 읽기 교육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기말에 이르러 수강생들이 보여주는 변화와 만족감은 매우 뚜렷하며 토론도 매우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더욱 성숙한 형태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0. 고전읽기 독서 동아리 탄생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제시한 자기 발견의 방향 제시는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해서 2011년 가을에 학생들에 의한 자발적 독서 동아리가 탄생했다. 학생들이 대표적인 인문학 고전을 읽고 토론한다는 목표로 탄생한 이 동아리는 탁월성을 의미하는 <아레테 arete>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금세 학생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1년만에 참여 학생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학교 내의 공간이 부족하게 되자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학교 인근의 카페에 공간 협조를 부탁해야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학교의 지원에 힘입어 순식간에 600여명이 참여하여 경희대학교의 가장 큰 동아리로 성장한 <아레테>는 2013년 교육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레테>는 시대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각기 다른 관심 분야를 가진 6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관심에 따라 백여개의 소모임으로 구성된다. 각기 5-6명의 독서 토론 모임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되는데 학기 중 한두번의 화제작 토론회를 가지기도 한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이들의 자발적 독서와 토론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 교수를 임명하고 매월 웹진을 발행하며 공간 사용의 편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2014년 봄에는 <후마니타스 칼리지 키워드 34>를 선정해서 전문가들의 핵심 개념 해설서 [청춘은 책의 날개 위에 꽃핀다: 후마니타스 키워드 34]를 펴내기도 했다. 이 책은 인문사회과학 고전 이해에서 핵심적인 개념을 광범위한 맥락에서 파악하도록 이끌면서 추천도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시켜서 심도있는 고전읽기로 유도하도록 기획되었다. 이러한 기획은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택하고 있는 고전에 대한 주제적, 문제 의식적 접근을 권장하면서 이를 통해 자기발견의 독서를 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맺는 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교육에서의 고전의 위치」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위대함에 대한 습관화된 통찰과 유리된 도덕 교육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위대하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건 또는 무엇이 문제이건 상관이 없다. 그런데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은 직접적인 직관이지 어떤 논증의 결론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종교적 개종을 고민하는 청년이 지금의 본인이 벌레와 같은 존재이고 인간이 아니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의 영원한 노여움을 정당하다고 믿을 수 있을 만큼 위대함에 대한 확신이 남아있는 한, 그것은 허용될 수 있다. 위대함에 대한 감각은 도덕의 기초다.”¹⁾

화이트헤드의 이 말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과 호연지기를 가르친 맹자의 인간관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동서양을 통털어 고전의 세계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고전은 독립된 인격의 어른으로 성장하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이 위대한 정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텍스트다. 과거의 인류가 만든 모범적 사례들은 인간이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파편화된 세계를 다시 전일적인 관점에서 보게 하고 위대한 인간, 위대한 세계를 꿈꾸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현재 한국의 거의 모든 대학의 신입생들은 입시 지옥을 거치고 대학에 들어와 안도의 숨을 내쉬는 시간도 잠시, 장래에 대한 불안에 노출된다. 그들은 무너진 공교육의 현장에서 암기위주의 입시교육에 시달려서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있다. 그들이 익힌 지식은 파편화되어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있어 구체적인 삶의 문맥에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 무력감의 원인이 된다.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과 이 세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다. 자신이 지금 왜 여기 와 있으며 어떻게 사회 혹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 세계 속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그리고 자신이 아닌 타인들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인류가 선각자들의 위대한 정신세계를 산출해냈으며 우리 자신이 그러한 위대한 정신의 후예이자 담지자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대학은 그들에게 이러한 자각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즉, 더 이상 부모나 사회가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어야 하는 아이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으로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성숙한 어른, 위대함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변모하는 계기를 대학은 신입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어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성숙한 어른으로서 인류문화에 기여하는 인격을 갖추기 위한 소양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확립에 대한 질문인 동시에 현재 대학 신입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교양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신입생들이 이러한 자질과 소양, 즉 교양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어떤 교양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인가? 독립된 인간으로서 성숙한 인격을 갖춘 어른이 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소양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교양교육은 인간이 추구해온 가치를 알아보고 내 자신이 그러한 가치에 동의하는지, 동의하

1) 『교육의 목적』, 오영환 역, 궁리, 161쪽. 번역은 필자가 조금 고쳤음.

지 않는다면 왜 그러한지를 탐색하면서 세계 속에 놓인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내가 인간이라면 인간은 과연 어떤 동물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다.

인간이 지금까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인류문명을 일구어왔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아이는 어른으로 변모한다. 인류문명이 추구해온 가치는 인류가 지금까지 생산해낸 인문학의 고전에서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고전은 그것이 인간의 이해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 문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답이 끝나지 않은 질문을 담고 있는 책이다. 물론 여기에는 고대나 중세 시기의 고전은 물론이고 현대의 고전을 포함한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대학생들이 이러한 고전 읽기를 통해 현대문명이 당면하고 있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융합문명시대를 돌파할 자기 발견과 세계 이해의 지혜를 얻기를 기대한다. 고전 읽기 교과를 시행하면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이미 길은 시작되었다.

이영준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민음사 편집부에 입사해 편집장, 편집주간으로 일했다. 1997년에 도미, 뉴욕대 방문학자로 있다가 이듬해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문명학과에 입학, 김수영 연구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의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쳤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장 겸 교양교육연구소장으로 재직중이다.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영문 문예지 AZALEA를 2007년 창간하여 지금까지 10호까지 펴내면서 편집장으로 서 한국 문학을 영어권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김수영 육필시고 전집』(민음사, 2009) 김수영 시선집 『꽃잎』(민음사, 2016)을 편집해 발간했으며, “Howling Plants and Animals”(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2012), “Sovereignty in the Silence of Language: The Political Vision of Kim Suyoung’s Poetry”(Acta Koreana, 2015) 「꽃의 시학: 김수영 시에 나타난 꽃 이미지와 언어의 주권」 등의 논문과 한국 문학에 대한 다수의 평문을 발표했다. 『김수영전집』을 새로이 편집해 2018년 봄에 발간할 예정이다.